

## [ 오피니언 ]

## 다산포럼

임성진



지구생태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근래 환경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외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종류도 지구온난화펀드, 물펀드, 뉴에너지펀드 등으로 다양하다. 환경펀드가 이렇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환경과 경제의 전통적인 대립관계가 새롭게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주식시장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펀드의 등장은 2000년경부터 확산된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 SRI)'라는 새로운 기업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온난화펀드 등 상품 인기

당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은 투자회사들이 환경펀드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위기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환경투자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일고 있는 이 새로운 변화는 미래시장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일이 곧 돈을 버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

## 환경투자는 미래투자다

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혁신적 미래기술과 녹색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산업체제의 동력인 친환경 미래혁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투자에 갈수록 더 큰 이윤 창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사설은 환경과 경제가 갈등관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통합단계로 들어섬을 뜻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러한 인식변화에는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원래 임업에 적용되어온 개념이다. 숲을 무작정 벌목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산림자원을 모두 잃게 되지만 나무를 복제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벌목한 만큼의 묵목을 심으면 숲을 이용하면 주어진 산림자원을 보존하면서 목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이 체계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가 1987년에 내놓은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이다.

미래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세대를 초월한 형평성을 달성하는 개발만이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인 복지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의

## 지구 지키는 일이 곧 돈이다

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그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개발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미래 사회의 진보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체제와 신시장경제만이 창조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새로운 차원의 미래기술혁신과 시스템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환경펀드가 돈이 되는 것. 그것은 돈벌이 차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금 인류문명의 진보역사는 낡은 개발의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명 패러다임으로 변신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환경·에너지정책)·전주대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문화도시' 종합계획안 지역여론 반영돼야

광주시가 20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입장문을 밝혔다. 시의 입장 발표는 22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차 공청회와 오는 9월에 확정될 종합계획안에 지역 여론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문화전당 랜드마크 및 주차장, 문화사업 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문광부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한데서 비롯됐다.

광주시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청회에 결과에 대해 문화사업 콘텐츠 개발 계획과 문화전당 주차장 규모, 랜드마크 기능 보강 문제는 시의 제언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지역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을 비롯한 민간 자본의 정부 유치, 문화 전당 외곽 주차

장 확대, 전문 공연장 및 국립아시아 현대 미술관 설치 등 지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은 반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광주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은 문화 전당 내부 주차장을 최소화하되 외곽 주차장 규모를 1천50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주차장 축소와 외곽 주차장 확대는 시민공원화와 친환경이라는 문화전당의 기능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차장 법에 따라 내부 주차장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광주시와 문광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문화 전당 주변을 주차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의 의지가 문제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 짓는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계획안에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 대선후보로 이명박 선택한 한나라당

생결단식 검증공방을 벌여왔다.

더구나 당내 경선은 예선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다. 대선은 아직 4개월여 남았고 범여권은 후보자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경선 후유증이 확산되면 이 후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시장은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빨빨의 정체가 아닌 덫셈의 정치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선과정에서 생긴 끝은 감정은 모두 잊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백의종군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화합을 전면하고, 박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당내 갈등은 외형상으로는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경선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후보는 1년 2개월간의 경선과정에서 인신공격과 무차별 폭로전 등 사

이 후보가 내놓을 당내 화합책이 주목된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양 진영간 화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서로 사

사건간 충돌하고 도를 넘는 '막말'까지

주고 받은 만큼 물리적 화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화학적 결합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 후보에게 쌓인 각종 의혹도 풀어야 한다. 이 후보는 도곡동 땅과 BBK 등 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검증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모두가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부여된 과제인 것이다.

## 無等鼓

아닌 메이저리그로 작행했다.

김병현이 지난 16일 애리조나에서 방출됨으로써 메이저리그 진출 13년 역사상 한국인 빅리거가 단 1명도 없는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반면에 일본선수들은 무려 14명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 빅리거들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빅리거가 전멸한 원인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박찬호뿐 아니라 김병현, 서재웅, 최희섭 등은 모두 국내에서 프로야구 맛을 보지 못한 척 미국땅을 밟았다. 하지만 스즈키 이치로, 마쓰이 히데키, 마쓰카

까 다이스 등 일본

선수들은 자국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와 투수로 올라선 뒤 미국행을 택했다.

'메이저리그 코치는 아무 것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최희섭이 털어놓은 적이 있다. 빅리그는 오직 실력만이 통하는 최고수들의 경연장이자 뜻내기들의 훈련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문장 kihh@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박필순



해마다 여름이면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이다. 풍성한 과일이 있고, 학생들도 방학이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다. 다른 계절에 비해 증가한다.

지난 2005년부터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정부나 광주시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줄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이 문제는 생활문제이므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관건이

게 하며, 땅을 숨 쉬게 해주는 위대한 존재이다.

3년 동안 100여 가정에서 '지렁이와의 동기'를 시작했고, 방법에 익숙해지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북구 중흥3동에 '꿈틀이 공원'을 조성해 주목을 받았고, 올해에는 '전남여고' 환경반에서 작은 뢰비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아파트'에 도전하고 있는 '신안동 모아아파트'의 공동동 뢰비장을 기대가 크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다른 가정

## 찰칵! 동물 세상

## 물범과 물개의 차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여행한 독자들이 라면 인어공주상을 반드시 둘러봤을 것이다. 이 인어공주상은 물개의 자세를 모델로 했다.

바위위에서 쉴 때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우아한 여인의 자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로 물에 의존해 사는 동물치고 사지가 육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물개가 특별한 것이다.

그런데 물범과 물개의 차이는 뭘까.

물범은 주로 주운 극지방에 살며 거의 바다 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양처럼 쪽으로 잘 발달해있다. 작은 고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앞 뒷발은 퇴화되어 거의 미사일형의 통짜 몸매를 이룬다. 하지만 작은 양발은 균형 지느러미 역할을, 쪽 뺨은 뒷발은 추진과 방향 키 역할을 한다. 잘 해엄치기에 알맞은 형태로 바뀐 것이다.

가끔 육지로 나서 일광욕을 할 때는

발 대신 배를 이용한다. 이를바 '배치기'로 이동한다.

물개는 다르다. '불개소' 불 때를 상상하면 된다. 물개는 수영은 물론 앞발 뒷발이 충분히 길고 자유로이 구부러져 육지에서나 물에서나 잘 이동할 수 있다.

몸 역시 가볍고 날렵해 목으로 땅 받기나 코로 공놀리기 등 고난도의 곡예도 소화할 수 있다.

머리도 무척 영리한 편에 속한다. 어려서부터 정성과 사랑을 쏟아 키운다면 조련사와도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잘 훈련된 물개는 부르는 게 많일 정도로 비싸게 거래된다. 물론 잘 훈련된 물개를 만드는 것은 조련사 역할이 가장 크다. 잘 키운 조련사 한 명은 동물과 주변 사람 모두를 두루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지렁이에게 배우자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음식점·학교 등의 단체급식 시설에서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해 그 배출량을 단 1%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풍족한 소비생활을 성하고 남기지 않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주부회원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가 다른 미들로 여기는 '지렁이'

생명체인 지렁이를 통해, 우리의 낭비적인 삶을 반성하며,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퇴비화)를 실천할 수 있었다. 지렁이 덕이 있다.

지렁이는 흙 속에 살면서 지구상의 동·식물쓰레기를 먹고 토양을 기름지

과 학교·식당·교회·아파트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북구 매곡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지렁이 생태마을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다. 주말농장과 텃밭을 가진 친환경 농부들도 지렁이를 통해 '도시에서의 자원순환'을 꿈꾸고 있다.

물론 지렁이 퇴비화만이 방법은 아니다. 무엇보다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분리수거와 수분제거만 해도 효과는 크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지렁이를 비롯하여 EM(미생물 발효), 처리기기 사용 등도 해볼 만하다.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광주시와 지자체의 노력도 아쉽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하기 전에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성과보수를 주는 지원책을 내놓기 기대된다.

지렁이는 흙 속에 살면서 지구상의

동·식물쓰레기를 먹고 토양을 기름지

여야 했다. 그러나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

## 공원시설도 장애인 위한 전용주차장 등 배려를

## 젊은층 사주나 이름풀이 개명은 자제해야

예전에는 '나죽자'라든가 조진연, 활천길 등 일반적으로 부르기에도 좀 난감한 이름들이 많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개명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명이 가능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름 풀이가 나쁘다거나 사주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최근 알고 지내는 사람의 대학생 딸이 개명을 했다. 이전 사용하던 이름도 괜찮았는데 인터넷의 이름풀이 사이트에서 좋지 않

은 풀이가 나왔다고 했다.

이름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개명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이름풀이나 사주를 보고 개명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가 아닐까.

이름을 바꾼 해도 상당 기간 주변 사람들은 기억에 남아 있는 예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젊은 사람들은 개명하여 운명이 좋아질 것이라는 나약한 생각보다 자신의 인